

「怨」의 詩學

金 周 漢

I

「원(怨)」은 「에(恚)」와 같은 뜻이다. 恚는 「노(怒)」의 뜻이다. 따라서 怨은 怒와 같은 뜻으로 풀이 된다. 怨은 「苑」과 「心」을 합친 형성자(形聲字)이다. 「苑」은 「돌아 눕는다」는 뜻이다. 「夕」과 「印」이 합친 것인데 저녁에 잠을 못 이루고 몸을 뒤척인다는 뜻이다. 「展轉反側」한다는 뜻이다. 오매불망하면서 요조숙녀를 구해도 구할 수 없어 몸을 뒤척인다는 뜻이다. 뜻대로 안 될 때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不如意」가 싫기에 모두 「如意」, 「如意珠」, 「여의방(如意棒)」도 만들게 되는 것이다.

「노(怒)」는 어떤 자(字)인가? 「奴」와 「心」을 합친 형성자이다. 「奴」는 「婢」와 함께 모두가 옛날의 「죄인(罪人)」이다. 죄(罪)는 곧 범법(犯法)을 뜻한다. 진(秦)의 시황(始皇)은 이 글자가 「皇」자와 닮았다고 해서 「罪」자로 고쳤다고 한다. 「고(辜)」와 같은 뜻이다. 죄인은 진짜 죄를 지어 죄인이 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억울하게 죄인이 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노(奴) 가운데서 남자는 「죄예(隸)」에 편입시키고, 여자는 「용고(春羹)」에 편입시켰다고 한다. 곧 도적(盜賊)으로 곧 범죄 전과자(前科者)로 덮어 씌우는 경우인데, 이런 과정에서선 공정(公正)하게 심판이 되느냐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부당하게 걸렸을 때 「不如意」하고 따라서 억울하게 된다. 노여움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의(意)」란 글자는 좋은 뜻(勝義), 나쁜 뜻(劣義) 두 갈래로 해석이 가능한데, 나쁜 뜻으로서의 「意」일 때는 그 「불여의」가 별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나쁜

것 할 의도(意圖)로 저지른 것이 실패했을 때, 불여의하다고 노여워하거나 원망(怨望)하거나 원한(怨恨)에 져올 수는 없는 것이다. 순수한 意일 때 곧 「성의(誠意)」일 때는 달리 「지(志)」라고 한다. 승의의 意 곧 志가 실패했을 때 「실지(失志)」라 하고 과거엔 실지를 노래한 문학을 「실지문학(失志文學)」이라고 불렀다. 「한(恨)」의 문학이라고도 할 수 있다.

「恨」은 「心」과 「艮」 둘로 짜인 글자이다. 「간(艮)은 「徹」의 뜻으로 「말을 듣지 않다(不聽從)」라는 뜻이며, 두 눈이 서로 꼬와 본다는 의미로도 해석한다. 곧 「노여운 눈으로 서로 꼬와 본다(怒目相視)」는 뜻을 갖고 있다고 풀이했다. 억울함이 있을 때 자신이 당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곧 불여의, 실지했을 때 생기는 것이 한(恨)이라고 할 수 있다. 「원한(怨恨)」이란 말은 섬찍함마저 자 아내게 해 주는 말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의 뜻대로 안 돼서 몸을 뒤척일 때의 마음, 남이 나로부터 등을 돌려 버릴 때 당하는 배신감 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사상과 감정, 행위가 부당했을 때 당하는 억울함이나 배신감 같은 것, 사회적 불이익 등 때문에 생기는 감정을 원한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누구나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판단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怨풀이」, 「恨풀이」는 생명존재세계 그 자체의 「저절로」, 곧 「절로」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존재세계의 일원(一員)임을 주장하고 인정 받으려면 이 원풀이 한풀이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또 막지도 말아야 한다. 왜냐? 원이나 한이란 것은 일단 좌절이나 파괴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절로 풀려 나가야 하는데 그 것이 불가능할 때 울결이 생기고 생리에 중대한 장애가 되는 것이다.

원과 한, 원한이 생기는 상황이야 정말로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렵다. 자기원인에서 생기는 것은 그것대로, 남의 원인 때문에 생기는 것은 또 그것대로 뒤엎어서 풀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다. 「노래 삼킨 사람 시름도 하도 할샤. 일러 다 못 일러 노래로 푸듯던가? 진실로 풀릴 것이면 나도 불러 보리라.」

「시름」이란 곧 원이요 한일 수 있다. 시름(患, 憂)이 짊어지면, 풀리지 않으면 원과 한 원한이 되는 것 아니겠나?¹⁾

II

시와怨의 관계를 언급한 것은 孔子의 시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는 많은 부분 왜곡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 중에서도 이怨에 관한 한 더욱 심각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도 두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 우리 선인(先人)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으며 어떻게 적용했는지도 흥미를 자아내게 하는 대목이다.

공자는 말했다. “자네들 왜 시를 배우지 않는가? 시는 일으켜 줄 수 있으며 관찰할 수 있게 하고, 남과 화합하게 하며, 원망하게 할 수도 있네. 가까이로는 집에서 어버이를 섬기는 도리를 알게 해 주며, 집 밖에 멀리 나가서 임금을 섬기게도 하고 새나 짐승 풀과 나무의 이름을 많이 알게 해 주는데……”.

子曰：小子 何莫學夫詩？詩可以興，可以觀，可以羣，可以怨。邇之事父，遠之事君，多識於鳥獸草木之名。²⁾

시는 시경(詩經)을 가리킨다. 중국 사사가 중에 시를 가장 많이 인용한 사람이 공자 맹자이다. 공자는 시를 읽으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興·觀·羣·怨」 네 가지와 「事父·事君」의 두 가지, 그리고 「鳥獸草木」의 이름이라도 여분으로 알 수 있음을 꼽았다. 앞의 네 가지는 시를 읽는 독자(讀者) 개인에 관한 것이라면,

1) 許慎撰，段玉裁注，說文解字注(黎明文化事業公司 台北 中華民國 75年 12月 增訂二版.)
 2) 許進雄 著 中國古代社會—文學與人類學的 透視(臺灣商務印書館發行，中華民國 77年 9月 初版) 兩冊을 참고했음.

2) 論語，陽貨.

다음의 두 가지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행동 지침을 터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마지막 지적은 시에 나오는 새나 짐승, 초목의 이름을 많이 알 수 있어서 통유(通儒)의 통식(通識)을 박물학(博物學)의 입장에서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 맹자의 「親親而仁民, 仁民而愛物」 곧 가정윤리(親親)에서 사회윤리(仁民)로, 사회윤리(仁民)에서 존재윤리(愛物)로의 확대적용을 강조한 것과 동케라고 하겠다.

「可以怨」 곧 원망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독자가 시를 읽고 시를 지은 시인의 원망의 감정이나 사상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곧 시경 속의 시에는 「怨」을 주제로 하는 시가 있다는 것을 공자가 지적해 준 것이다. 시인은 무엇을 누구를 왜 원망했던 말인가? 공맹학도들은 사환(仕宦)의 길에서 권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공자가 지적한 원의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외면 했을 수도 있다 하겠다.

그러나 공자 자신은 남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했음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논어에 원망에 관한 언급이 매우 많다는 사실에서 공자가 이 원에 대해 갖고 있던 관심은 대단했다고 하겠다.

공자는 말했다. “날 몰라주는구나!” 자공이 여쭙었다. “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십니까?” 공자가 말했다. “하늘을 원망치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밑바닥부터 배워서 심오한 경지에게까지 올랐으니 날 알아 줄 자는 하늘 뿐이구나.”

子曰：莫我知也夫。子貢曰：何爲其莫知子也？子曰：不怨天，不尤人，下學而上達，知我者其天乎！³⁾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는다. 밑바닥 인생부터 저 높은 인격의 세계까지 올랐으니 하늘이나 날 알아 줄까?」 이른바 「達觀」의 경지라고나 할까? 공자를 배우고자 했던 맹자는 직접 시경의 시를 가지고 토론을 전개하고 있다.

3) 論語에는 19次나 「怨」字가 나온다.

4) 論語，憲問.

공손추(公孫丑)가 맹자에게 말했다. “고자(高子)가 ‘소반(小弁)은 소인(小人)이 지은 시다.’라고”. 맹자가 그 까닭을 물었을 때 “원망했기 때문이랍니다.”라고 공손추가 대답했다. 여기서 우리는 高子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소반>은 시경 소아(小雅)에 나오는 한 편(篇)의 시이다. 주(周)의 유왕(幽王)이 신후(申后)를 맞아서 태자 의구(宜臼)를 낳았다. 뒤에 포사(褒姒)라는 여인을 맞아 백복(伯服)이란 아들을 낳고는 신후를 내어 쫓고 의구를 태자 자리에서 축출했다. 이에 의구의 스승(傅)이 이 소반이란 시를 지어서 유왕을 풍자한 것이다. 의구의 스승이 의구의 「애통박절지정(哀痛迫切之情)」을 대변한 시로 보는 것이다. 유왕은 의구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맹자는 고자의 시 해석(爲詩)을 고루하다고 했다. 월남 사람이 화살에 맞은 것을 보고도 웃는다면 이는 웃는 사람과 월남 사람의 손수가 멀기 때문이다. 만약 웃는 사람의 형이 화살에 맞았다면 그 사람은 울고불고 했을 것이다. 이는 혈육 동기를 친애하기 때문이다(親親). 친친은 인(仁)의 발로이다. 유왕이 전처를 내쫓고 전처의 아들 태자 의구를 폐위한 뒤 죽이고자까지 했는데, 즉 그런 폐륜 행위를 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오불관언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효성을 포기하여 부자관계를 더욱 소원(疏遠)하게 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원망해야 한다는 것이 맹자의 생각이고 따라서 고자의 시해석은 고루하게 된다.

공손추는 의문이 커진다. 그래서 개풍(凱風), 곧 詩經 國風 郡風에 나오는 개풍이란 시에는 왜 원망의 감정이 담기지 않았느냐고 묻는다. 위(衛) 땅에 아들 일곱을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재가의 뜻이 있었다. 이 사실을 안 일곱 아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편케 해 드리지 못함을 자책한 내용으로 된 시다. 과거에 청상과부로 어린 자식을 둔 경우 재가가 가능했던 것이지만 일곱 아들을 뒀다면 늙은 과부니까 자식 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 때 어머니가 재가의 염을 가졌다면 실수라고 할 수 있다. 이 자그만 실수를 아들 일곱이 용납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노여워한다면 이 또한 불효자가 된다는 게 맹자의 풀이이다. 소반의 시는 부모의 허물이 지대(至大) 한데도 원망하지 않으면 효자가 아니며 따라서 부자간의 정의가

더욱 소원해 진다는 것이고, 개풍의 시는 어머니의 작은 허물을 용납 못하는 자식의 마음어기에 역시 불효라는 생각이다. 당연히 원망해야 할 때는 원망해야 한다는 것이 맹자의 생각이고, 따라서 고자의 생각은 고루하다는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다.⁵⁾

소반은 유왕을 풍자한 작품이고 개풍은 효자의 마음을 찬미한 작품으로 보는 것이다.⁶⁾

모시(毛詩)의 소서(小序)는 各 詩의 주제를 밝혀 놓은 것인데 찬미와 풍자 곧 「미자(美刺)」의 두 기능을 주장한 것이다. 이 「미자설(美刺說)」이 중국 한당(漢唐) 시대 시학의 중요한 내용이다. 한 나라 하간현왕(河間獻王)이 천하의 전적과 문사를 모아 놓고 당대 학문의 중심 역할을 담당했는데 현왕이 한나라 중앙정부 곧 조정으로부터 견제를 당하기도 해서 그런지 시의 주제를 풍자로 규정한 게 매우 많다.

정현(鄭玄)의 시보서(詩譜序)에는 「장순기미, 자과기실(將順其美, 刺過譏失)」⁷이라고 했는데 순리를 찬미하고 과실을 기자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으며, 공영달(孔穎達)의 모시정의서(毛詩正義序)⁸⁾에는 풍유(諷諭), 원자(怨刺)의 내용을 강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물론 모시 대서(大序)의 풍(風)의 기능을 얘기하는데 「上以風化下, 下以風刺上」⁹⁾ 양 방향을 아울러 강조하는 것과 동케라

5) 孟子, 告子下. 孟子 萬章上에는 咸丘蒙이 시경, 소아, 北山詩에 나오는 「普天之下 莫非王土, 率土之濱 莫非王臣」이란 句를 들어 舜이 天子이면 舜의 父 高辛(省斐)도 당연히 아들인 舜의 신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왜 안그러냐?고 물었다. 맹자는 달리 해석했다. 곧 天下의 모든 사람이 일해야 하는데 왜 나만 홀로 일해야 하느냐? 하는 걸 원망한 시라고 평가한 예도 있음.

6) 毛詩小序 「小弁刺幽王也, 太子之傳作書」 또 「凱風美孝子也, 衛之淫風流行雖有七子之母猶不能安其室, 故美七子能盡其孝道, 以慰其母心, 而成其志焉」

7) 詩經, 十三經注疏本.

8) 同注 7)

9) 同注 7)

고 하겠다.

이런 한당 시학의 미자설이 송명(宋明) 시대로 오면 「怨刺·讖刺」의 기능이 약해지고 소위 「성정지정(性情之正)」을 강조하게 된다. 성정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시를 지을 때의 「一心」을 옹호하게 된다. 주희(朱熹)는 시경 당풍(唐風) 실술(蟋蟀)이란 시를 모시 소서가 진희공(晉僖公)을 풍자한 것으로 규정한 것¹⁰⁾을 몹시 못 마땅하게 여긴 적이 있다. 곧 실술이란 시는 농부들이 일년 농사를 마치고 한 바탕 음주가무로 즐긴다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다. 백성들은 예절을 알아서 검소한 생활을 하는데 임금의 도리어 사치해서 예절에 맞지 않다고 한 소서의 규정을 「어찌 이런 이치가 있으리(豈有此理)?」라고 하면서 무지몽매한 백성들은 예를 아는데 임금이 예를 모르는 그런 이치가 있겠느냐고 반문한 적이 있다. 따라서 시의 풍자 기능에서도 「上以風化下」쪽을 부각시키고, 「下以風刺上」의 기능을 폄하하는 듯한 언급을 하기도 했다. 이는 주자의 理學에서 「當然之理」가 강조된 탓도 있지만 君民 二元論의 사고가 짙게 남아 있는 까닭이라고 할 수 있다.¹¹⁾ 청(淸) 나라 때 오면 주자의 이런 견해가 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儒者가 진·한 대일통의 전제왕정하에서 차츰 「문견(文犬)」, 「문개(文丐)」가 되어 「존군비신(尊君卑臣)」한 가닥밖에 알지 못했던 시대에 주자는 존군비신만 아는 문견·문개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나 굳어 버린 고정관념을 씻기에는 역부족이었다.¹²⁾ 차선책으로 「진정대영웅(真正大英雄)」을 허락 인정하고¹³⁾, 「봉건(封建)」제도를 회복한들 小人이 득실거리는 세상에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했으며,¹⁴⁾ 임금을 향해 「公」을 외쳐대지만¹⁵⁾ 고장난명 그것이었다.

10) 同注 7) 「蟋蟀刺晉僖公也，儉不中禮，故作是詩以問之……」라고 썼다.

11) 拙稿，中韓理學家之文學觀及其影響 참조바람.

12) 徐復觀 儒家對中國歷史運命掙扎之一例.

新版學術與政治之間，臺灣學生書局印行 中華民國 74年 4月 臺再版.

13) 拙稿 擬富 李源祚의 文學世界

14) 朱子語類 宋 黎靖德編 卷第四，「……今儒者多歎息封建不行，然行著亦可應……」

15) 戊申封事，朱子大全 冊二 文十一， 주자 59세 作.

이학(理學)의 특색이 절대순수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라서 「二心」을 싫어하고 「一心」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것은 원론적으로는 강조해야 마땅하지만 현실적으로 二心이 횡행하는데도 모르거나 알면서도 외면한 채 匡正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주자는 「사람의 성격이 온유敦厚(溫柔敦厚) 함은 시경으로 교화시킨 결과이다. 시 한 수 지을 때마다 모두 기자(譏刺)를 생각하고 짓는다면 사람이 어떻게 온유敦厚해지겠는가?」¹⁶⁾ 라고 하여 예기(禮記) 경해(經解)의 견해를 존중하고 있다. 풍자가 지나치면 성정이 온유敦厚해지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君臣民 모두가 온유敦厚해야지 현실은 그렇지 못한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통(政統)과 교통(敎統)·도통(道統)이 분리부잡(不離不雜)의 관계인 줄 알면서도 당장 실현시키지 못했던 옛날이나 지금의 불합리가 문제인데 교화의 기능을 강조한 나머지 이 점을 좀 소홀히하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下以風刺上」의 기능을 일견 과소평가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것이니 주자 같은 호걸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 하겠다.

III

주자가 기자(譏刺) 곧 원자(怨刺)의 기능을 약화시킨 결과가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짙게 나타난다. 주자는 공자의 「可以怨」의 원을 「怨而不怒」로 주석한 바 있다. 宋儒 정자(程子)는 七情 중에 가장 억제하기 어려운 것이 「怨」이라고 한 적이 있다. 주자도 같은 생각이었다.

이조 22대 정조는 재위 23년 己未(1799) 9월 24일에 《雅頌》이란 책을 만들고 친히 서문까지 쓴 적이 있다. 이 책은 정조가 주자의 詩에서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뽑아 실은 것인데 공자의 「興·觀·羣·怨」 네 가지 기능 중 怨만 빼 버렸

16) 朱子語類 卷第 80. 詩一. 綱領.

「溫柔敦厚詩之敎也, 使篇篇皆是譏刺, 人安得溫柔敦厚」

다. 이는 주자의 시에는 「怨」이 담긴 시가 없다고 여긴 탓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怨」의 내용을 담은 시는 정조가 애초부터 신지 않고자 했는지도 모른다. 주자는 자기의 시에 「性情不正」할 때의 시도 있다고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茶山 丁若鏞(1762~1836)은 49세 되던 庚午年(1810) 봄에 《시경강의보유(詩經講義補遺)》를 지었다. 이 책에서 다산은 국풍(國風)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주자의 생각을 비판한 적이 있다. 「주자는 《집전》에서 풍자를 삭제해 버리고 풍화의 기능만 남겨 놓았다. 그러나 풍자의 의리를 시경을 통해서 강론할 수 있다.¹⁷⁾ 곧 주자는 《詩集傳》에서 《毛詩》〈大序〉의 「上以風化下, 下以風刺上」 두 가지 風의 기능 중 「風化」만 강조하고 「風刺」 곧 「怨刺」의 기능은 약화시켰다고 비판한 것이다.

다산은 이런 비판을 한 3년 뒤인 52세(1813)때 《論語古今注》 10卷을 썼다. 「可以怨」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주석을 달고 있다. 논어의 이 대목에서 스스로 「案」語를 달았는데 특히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주자의 「怨而不怒」에는 큰 거부감을 보이지 않고 공안국의 「怨刺上政」에는 크게 반대하면서 맹자의 해석을 「最精」이라고 했다. 군자(君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不怨天不尤人)」¹⁸⁾는 공자의 말을 긍정하면서 「君親」을 원망할 수는 없다고 했다. 군친의 허물이 적은데도 원망함은 아량이 없는 것이고, 허물이 많은데도 원망하지 않음은 관심이 없어 더욱 애정이 소원해지게 하는 것이기에 좋지 않다고 했다. 이 정도의 원망은 성인이 허락을 했지만 그 원망의 감정 속에 조금이라도 「헐뜯고 훼방하는 것(謗詩非毀)」에 가까운 감정이 있다면 이는 「大罪」라고 규정했다. 시를 잘 짓고 잘 읽고 잘 이용하는 사람이 「성인의 충후간절한 뜻(聖人忠厚懇切之意)」을 터득한다면 「怨之義怨之法」 곧 원의 「義法」을 알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¹⁹⁾

17) 增補 與猶堂全書 冊二, 第十卷經集其五. 詩經講義補遺 「……朱子集傳削去風刺 孤存風化. 雖然風刺之義, 因可講也……」

18) 論語, 憲問.

19) 增補. 與猶堂全書 冊二, 第七卷. 論語古今注 卷九.

다산은 또 「純曰」로 시작하는 인용문에서 「怨」의 내용을 꼽고 있다. 자식이 부모를, 신하가 임금을, 아내가 남편을, 백성(民)이 그 윗 사람(上)을, 그리고 봉우간에 서로 원망하는 것 등으로 나열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임금이 신하를, 남편이 아내를, 윗 사람이 아랫 사람을 원망하는 얘기는 없다. 이는 「風刺」의 기능을 강론할 수 있다고 했으면서도 스스로의 한계를 노정한 게 아닌지 모르겠다. 「純曰」에는 또 「원망하면서도 노여워하지 않는 것은 평범한 사람(常人)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원망이 (시경의) 시인의 혼후(渾厚) 함을 갖지 못할 때는 곤란하다. 시로써 사람을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은 군자의 무리」라고 했다. 「忠厚懇切」, 「渾厚」 등 대체로 성리학적 「氣像論」을 받아 들이고 있다. 부모도 자식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고 임금도 신하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남편이 아내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으며 높은 사람이 민(民)을 원망할 수도 있는데, 이런 말은 없다. 왜 그럴까? 下向式의 사회 통념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

진한(秦漢) 대일통(大一統)의 專制王政 아래서 위축되기 시작한 지식분자들의 식견이, 충효 일념, 그것도 종묘사직을 높이기만 하고 존군비신만을 강요하면서 권력유지를 위해 상품화(商品化)한 이데올로기에 젖은 좁은 식견 때문이기도 했던 것이다. 다산은 자기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애군우국하지 않은 것은 시가 아니다(不愛君憂國非詩也)」²⁰⁾ 라고 했다. 이어서 「상시분속(傷時憤俗)」해야 하고 「미자권징(美刺勸懲)」의 의리가 담겨야 시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여기에 당시 士大夫의 하나였던 다산의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서교(西敎)·서학(西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정조는 충효 이데올로기로 위정척사를 내세웠다. 따라서 아송의 서문에선 「可以怨」을 언급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西敎에 심취한 사람들은 원한에 사무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平天下」는 中國의 문이기에 감히 생각도 못했고 그저 「治國」밖에

20) 同注 19) 冊一, 詩文集. 書. 寄澗兒 戊辰冬 다산 47세(1808) 때임.

관심할 수 없었던 정조 이 때의 국가도 「私國」, 「家國」 곧 一家의 사유물로서의 국가였기에 정조의 한계는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다산은 「怨」의 「原」理를 파헤치기 위해 <原怨>이란 글을 지었다. 이 글도 논어고금주의 견해와 진배 없다. 부모가 인자하지 않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원망할 수 있는가? 임금이 신하를 공홀히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신하가 임금을 원망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안 된다」고 답했다. 자식과 신하가 우순(虞舜)이나 굴원(屈原) 같이 충효를 극진히 한 뒤에야 원망해도 인정해 줄 수 있다고 했다.²¹⁾ 다산도 삼강(三綱)과 군사부일체가 강요되던 시대를 뛰어 넘을 수 없었던 것이고 또 서교 문제는 더욱 이 점을 공고히 했던 것이다.

「애원처고(哀怨悽苦)」²²⁾ 한 것, 「유일원탄창광조망(偷佚怨歎倡狂粗莽)」²³⁾ 한 것을 실어 놓은 청구영언은 「怨」에 대한 생각이 어찌면 다산보다 몇 갑절 더 절실했을지 모른다. 영언 곧 「가(歌)」가 시보다 더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보편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인류역사의 어쩔 수 없는 방향이라고 하겠다. 시조(時調)를 거쳐 지금까지 내려 오는 이 「怨」의 전통은 길고 절기다 하겠다.

시경 대서에는 「下以風刺上」할 때 「言之者無罪」 곧 「怨刺」를 시로 노래(言)한 사람은 「무죄」라고 했다. 과연이었던가? 그렇다면 역사에 그 수 많은 시참(詩讖)과 시화(詩禍)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신라 진성여왕 때의 王居仁이 읊은 <憤怨詩>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

「또한 그것으로 윗 사람의 다스림이 그릇됨을 나무라는」²⁴⁾이라고 인용한 《詩人》은 어떤 것인가? 김삿갓의 시세계는 어찌 이해해야 하는가? 「怨刺上政」을 위와 같이 옮겨 놓았다. 탐욕이 탐욕과 충돌하는 현장에 「과욕(寡慾)」, 「무욕(無慾)」은

21) 同注 19) 第十卷 原怨.

22) 靑丘永言 序 沈載完校本 歷代 時調全書 1227p.

23) 同注 22) 1228p.

24) 李文烈 詩人 148p. 1991. 7. 20 7판 발행 서울, 미성사. 이 글은 十三經注疏의 그것을 인용하고 있다.

나약한 패배자의 메아리없는 녀두리일 뿐인가? 시가 도대체 무엇인가? 자유란 도대체 무엇인가? 「기(氣)」는 무엇인가? 시와 자유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원과 자유의 관계는? 「怨」의 시는 지금도 여전히 엄숙한 논의의 대상일 수밖에 없음인가? 후고를 기대해 본다.